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5. 물질주의자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사례 1

커피 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 대기업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 청년유니온이 1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30%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밤 10시 이후 근무 시 평균 임금 1.5배인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33%는 이를 받지 못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0%는 연장 근무수당을, 64%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사례 2

A회사에서 100명의 인턴 사원을 선발하였다. 회사는 좋은 평가를 받은 인턴 사원은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근무지를 배정하였다. 인턴 사원들은 낮은 열정페이로 감수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6개월간 잘 감당하였다. 하지만 6개월 후 회사는 단 한 명의 인턴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례 3

미국의 정치학자 잉글하트가 제시한 척도를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응답자의 36.7%가 물질주의자로, 5.8%가 탈물질주의자로, 나머지 57.5%가 혼합형으로 분류되었다. 물질주의자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순으로 낮아졌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물질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물질주의자는 '영적이거나 지적이거나 문화적 가치 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열중하거나 치중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또는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철학을 따르는 자'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위의 사례처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주변의 사례도 좋다.
- 주변에서 경험한 또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속에서 만나 본 '물질주의자'의 모습에 대해 나누어 보자. 사례 3의 3가지 유형, 즉 물질주의자, 탈 물질주의자, 혼합형 중 현재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물질주의자 라반¹

‘지독한 물질주의자들’이라고 하면 문학 작품 속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 샤일록은 물질과 생명에 동일한 가치를 둔 잔인한 인물이며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간 자로 유명하다.

성경에 나오는 라반이라는 자도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샤일록과 비슷하다. 라반에 대해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왜 물질주의자로 불리기에 합당한지,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자.

I. 라반의 등장과 그의 관심사 (창 24:29-33)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오게 한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바로 라반이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반갑게 달려 나간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등장 처음부터 물질에 대한 관심사가 라반을 움직이게 한 동기였음을 가르쳐 준다. 라반에 대한 스토리는 창세기에서 갈수록 흥미롭게 진행된다.

II. 야곱 VS 라반 제 1 라운드 (창 29:13-15)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또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밋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간다.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많은 물질로 툭툭히 재미를 본 라반은 이번에는 생질이 왔으니 기대감에 부른다.

문제는 자신의 조카가 기대와 다르게 빈털터리이며, 도리어 자신이 돌봐줘야 하는 처지라는 데 있다.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애매한데, 그가 혈육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혈육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라반의 자비와 인내심의 한계가 한 달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난다.

한 달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에게 마치 그를 위하는 것처럼 “**네가 비록 내 생질이 나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접근한다. 한 달 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일을 거든 것이다. 라반의 말에는 야곱을 생질이 아닌 ‘고용된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인 라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을 얻기 위해서는 그녀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라반은 이미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을 마쳤다. 야곱의 선택은 결혼 지참금만큼 라반에게 보수 없이 일하는 것 밖에 없음을 말이다. 야곱은 무보수로 7년을 일한다. 라반은 현대판 악덕 고용주라 할 수 있다.

라반이 어떤 인물인가! 레아와 라헬을 바꿔치기하여 못생긴 첫째 딸도 해결하고,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딸을 준다는 조건으로 또 다른 7년의 세월 동안 보수 없이 야곱을 부려먹어 일석이조의 이득을 취한 자다. 야곱은 꿈쩍없이 다 합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해 준다.

이렇게 하여 야곱과 라반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야곱이 케이오(KO)를 당하고 만다. 삼촌의 순수성을 믿었던 야곱이 보기 좋게 이용 당한 것이다.



III. 야곱 VS 라반 제 2 라운드 (창 30:25-43)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을 계기로 그 동안 많은 자녀들을 얻은(창 30장 참고) 야곱은 그의 고향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야곱은 자신이 할 만큼 다 했고 결혼 지참금도 다 갚아 계약대로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라반도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복 주셨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복덩이를 왜 라반이 놓치겠는가! 영악한 고용주이자 약삭빠른 비즈니스맨인 라반은 야곱에게 ‘폼샷을 정하면 주겠다’라고 제안한다.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래 전에 들어본 익숙한 제안이다(창 29:15). 결국 주지 않았지만 말이다! 신명기 15장 13-14절에 보면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종이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 대우 받도록 되어 있고 6년 후, 7년째에는 자유를 주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아줄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주인의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종에게 후히 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신 만큼 그 일꾼에게 줄 것’을 명하고 있다. 이러한 율법 정신을 따른다면 6년이 아니라 14년을, 그것도 조카로서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 자신의 사위를 거저 부려먹은 라반은 야곱을 고향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빈 손으로 보내지 않을 도리를 다 해야 한다.

그러나 라반에게 그러한 의도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폼샷의 제안’을 한 것은 결혼 지참금의 계약관계는 끝났으므로 이제부터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다시 일해서 스스로 벌어서 나가라는 뜻이 숨어 있다. 이번에도 당하고 있을 야곱이 결코 아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의 몫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비율분배적 요구를 한다. 야곱은 앞으로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서는

접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자신의 몫으로 가지겠다는 제안을 한다. 물론 이미 무늬가 있는 것들은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 격리시킴으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당대에 얼룩이 없더라도 잠재적으로 후대에 나타날 유전의 원리에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입장으로 보아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야곱은 두 가지의 전략으로 임한다. 하나는 얼룩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앞에서 짐승들이 새끼를 베게 함으로 얼룩무늬의 새끼를 낳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는 건강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하여 건강한 양 앞에 무늬 있는 가지를 둠으로 계속적으로 무늬 있는 건강한 새끼를 낳도록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의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함이었다는 것을 후에 그의 아내들에게 고백한다(창 31:4-13):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창 31:9, 12). 하나님이 도와주어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신 것이다.



IV. 야곱 VS 라반 제 3 라운드 (창 31장)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도둑 취급하고(창 31:1), 라반도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때가 무르익자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신다(창 31:3, 13).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는 기간 중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간다(창 31:17-18). 삼일 후에 이 일을 발견한 라반이 다시 칠일 길을 쫓아가 야곱에게 다다른다(창 31:17-23). 라반은 결코 재산을 포기 하지 않는 악착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그때에 밤에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신다(창 31:24). 라반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창 31:29) 하면서 아무리 탐욕스런 라반이라도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나마 그래서 그가 목숨을 유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

라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사위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 라반은 더 이상 주장할 것도, 할 말도 없어졌다. 단지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창 31:43)라고 ‘나’라는 말을 네 번씩 써가며 모든 소유권을 공허하게 주장해 본다. 라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는 전형적 물질주의자다.

라반은 결국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사위도 딸들도 손주들도 많은 가족들도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경고까지 받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드신 세 가지의 이유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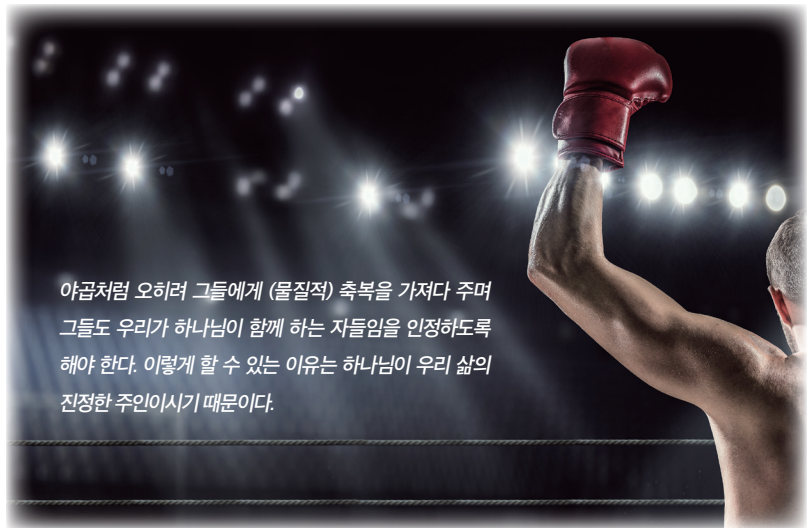
첫째는 라반의 부당한 행위를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이다(창 31:5, 7, 12).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창 31:7).

두 번째는 야곱의 성실성이다. 야곱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김으로 궁극적으로 라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창 31:6). 20년 동안 라반의 양 떼들이나 암 염소들이 거의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음을 입증한다(창 31:38).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출애굽기 22장 10-13절에 보면 짐승에게 찢긴 경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조차도 보충했으며 밤낮의 일교차를 겪어가며 잠을 줄이고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창 31:39-40).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야곱의 삶에서 가장 본받아야 하는 점이다.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이용해먹고, 속일지라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반이 거기에 대해 할 말을 잃었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야곱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 주며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벨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창 31:3, 13). 라반은 야곱을 속여 일시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을 결코 이길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 사이의 승부는 야곱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된다.



야곱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 주며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 라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 야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FWIA Voice

요약정리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물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물질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피해 스스로 넘어갈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실망을 안겨 주게 됩니다.



우리는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안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부당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ⁱ Biblical Point 전체는 다음 글에서 발췌했음. 김윤희, "라반: 물질주의자" CCC편지 11월호 (2005): 24-27.